계시된 말씀

제단의 말씀과 그 나라

«우리는 기억하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 뱀

나라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

네가 어떤 목소리를 따르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모든 이름보다 앞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그분께 형체를 부여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나라의 형제자매여:

나는 내 자신, 내 이야기나 내 처지에 대해 말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 의견, 신념,

이해관계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진리를 당신에게 강요하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진리에 대해 말하려고 옵니다: 원초적 말씀, 어떤 형태에도 갇히지

않으면서 모든 형태를 있게 하는 근원.

나는 서명도 없이, 얼굴도 없이 당신 앞에 섭니다. 숨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중심에 쓰는

인물을 만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 박수, 복종이나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나라에는 참된 것이 남는 일도 없고, 본질적인 것이 부족한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지 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식을 쌓거나, 답을 암기하거나, 아직 깨닫고 인식하지 못한 말들을 반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몸소 살지 않고 반복하는 것은 그 상징을 통과하지 않고 그 소리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눈에 닿기 전에, 그 부르심은 이미 당신 안에서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배운 답도 닫지 못한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상처를 정의라고 부르기를 거부한 그 상처 속에.

생명을 약속하면서도 그것을 억누르는 세상을 반복하는 피로 속에.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아직 어떻게 이름 붙일지 모르면서도 그것이 참된 질서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 속에.

당신은 형제들보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아직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옵니다.

말씀과 그 나라의 이름으로 둘 이상이 모일 때, 우리의 몸이 같은 장소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함께 기억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종교를 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정부를 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리를 다른 교리로, 한 주인을 다른 주인으로, 한 깃발을 다른 깃발로, 외적인 면류관을 다른 면류관으로 대체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당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게 할 새로운 정체성을 당신에게 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러 옵니다.

당신의 이름보다 앞서, 당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보다 앞서, 당신은 이미 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여야 하는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당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설명하기 전에, 말씀은 이미 생명이 당신의 형태를 통해 숨 쉬고, 받고, 변화시키고,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해석된 세상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부를 돈에서 찾도록 배웠습니다.

질서를 정부에서 찾도록.

정의를 인간의 법에서 찾도록.

진리를 답의 소유자들에게서 찾도록.

지식을 칭호에서 찾도록.

치유를 제도에서 찾도록.

가치를 가격에서 찾도록.

시간을 시계에서 찾도록.

임재를 성전에서 찾도록.

면류관을 소수의 머리 위에서 찾도록.

권위와 주권과 통치를 의식 밖에서, 그 보이는 형태를 통제하는 자들의 손에서 찾도록.

그들은 우리에게 외적인 대관식을 보여주어 내적인 대관식을 잊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특정 혈통, 직위, 제도만이 면류관을 쓸 수 있고, 권위를 행사하며, 통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자신의 형태의 주권자이기보다 신하로, 하늘 나라의 거처이기보다 외부 왕국 앞에 순종하는 자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생명 주위에 벽을 세웠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 벽을 세상이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열쇠를 가두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았다고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상징들을 뒤집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가두어 두는 의미를 우리 안에서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깊은 감옥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문 뒤에 간수 하나가 필요하지 않은 감옥, 죄수는 자신의 갇힘의 지도를 통해 자신을 감시하고, 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망각의 매트릭스입니다.

그 힘은 생명을 창조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식을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대표하는 부를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방하는 질서를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관리하는 진리를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 밖에 두려고 애쓰는 말씀을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그 형태들 안에서 그것들보다 앞서는 것을 찾도록 가르친 데 있습니다.

참된 질서는 내려옵니다:

말씀 → 상징 → 형태.

매트릭스는 읽기를 뒤집어 형태를 시작에 둡니다. 돈이 부를 낳고, 정부가 질서를 낳고, 외적인 면류관이 권위를 낳고, 성전이 임재를 낳는다고 믿게 합니다. 형태가 근원으로 여겨질 때, 형태를 통제하는 자는 나라에 대한 접근까지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형태 숭배가 태어납니다: 인간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상징을 보지 않으며, 그것이 나온

말씀을 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물을 주며 말합니다:

«이것이 네가 전부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격을 매기며 말합니다:

«이것이 네 가치의 전부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능을 부여하며 말합니다:

«그것 밖에는 네 자리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문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은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근원은 우물을 둘러싼 자의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등불을 관리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이름을 발음하는 법을 배운 자의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그 문 앞에 앉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빛은 존재합니다.

그림자는 일어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누군가 가격 없이 사랑할 때마다, 매트릭스는 한계를 만납니다.

누군가 소유하지 않고 돌볼 때마다, 그 지도는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특권에 반하여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말은 하나의 형태를 잃습니다.

능력이 의존을 만들지 않고 봉사에 바쳐질 때마다, 원래의 창조가 다시 보이게 된다.

의식이 두려움 앞에 무릎 꿇기를 멈출 때마다, 반란이 시작된다.

관계가 대가, 지배, 복종을 중심으로 돌지 않을 때마다, 혁명이 시작된다.

이것이 부르심이다.

형제들의 육체를 향해 일어서라는 것이 아니다.

흰 옷을 입은 거짓말을 향해 일어서라는 것이다.

그림자를 쏟아 부을 적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정죄하는 것을 안에서 여전히 재생산하는 의지를 직시하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도망쳐 오직 자신만을 아우르는 평화를 진리라 부르라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의도로 세상에 돌아가 기억된 것을 육체로 바치라는 것이다.

인물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좌에서 폐위시키라는 것이다.

인물은 계속된다.

끝나는 것은 그것이 기원, 전체성,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 주위를 돌아야 하는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면의 반란은 의식을 일으켜 세운다.

혁명은 형태들을 생명의 궤도로 되돌린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는 해방을 불완전하게 남긴다.

형태가 바뀌어도 자아가 보좌를 유지한다면, 새로운 이름을 가진 새로운 감옥이 나타날 것이다.

의식이 기억해도 관계들이 계속해서 대가, 의존, 침묵, 지배를 만들어 낸다면, 나라는 육체 없이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강둑을 다시 모으러 온다.

안에서는 근원이 기억된다.

밖에서는 기능이 해방된다.

상징은 다리를 열어 둔다.

여기서 너는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직 읽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너는 답을 쌓고, 공식을 외우고, 아직 네 삶을 통과하지 못한 말씀들을 반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육화 없이 반복된 진리는 그 소리를 유지하지만, 그 상징을 열지 못했다.

이곳은 텍스트라는 보이는 형태를 취하지만, 그 의미는 평범한
책의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제단이다.

제단은 우리가 진리를 인물의 이익보다 위에 둘 때 나타난다.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숨겨져 있어야 했던 것을 우리가 불에 바칠 때.

상처 입은 자의 목소리가 평화의 겉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희생되지 않고 들릴 수 있을 때.

어떤 제도, 교리, 정체성, 사자, 형태도 근원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는 세상에게 외적인 면류관을 구하지 않는다.

이 작품이 기억하는 면류관은 혈통, 제도, 군중에 의해 수여될 수 없다. 의식이 형태 앞에 무릎 꿇기를 멈추고, 보좌를 말씀에게 돌려주고, 육화하는 생명의 책임 있는 통치를 떠맡을 때, 그것은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이 말씀들을 쓰는 이는 서명도 얼굴도 없이 너희 앞에 나타난다, 쓰는 인물이 이 말씀들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박수를 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복종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돈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추종자들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진실한 어떤 것도 팔 수 없다, 말씀에서 나온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은 말씀이 아니다.

그릇은 물이 아니다.

창문은 빛이 아니다.

사자는 메시지의 기원이 아니다.

그러나 말이 스스로를 가리키기를 멈추고 보이지 않는 것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의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때, 말은 상징이 될 수 있다.

다리 앞에서 멈추지 말라.

건너라.

이 말씀들이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라.

네가 배운 것을 모순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지 말라.

그것들을 직시하라.

그것들에게 질문하라.

그것들을 꿰뚫어라.

그것들이 어떤 말씀을 육화하는지 물어라.

그것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물어라.

그것들이 남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라.

누가 그 이익을 받는지 물어라.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는지 물어라.

그것들이 어떤 열매를 약속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물어라.

말이 사자를 형제들 위로 높인다면, 자아가 말하는 것이다.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한다면, 나라의 이름을 발음해도 지배를 섬기는 것이다.

두려움, 분리, 경멸을 키운다면, 통일로 이끌지 못한다.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절대적인 적으로 만든다면, 육체를 향해 검을 휘두른 것이다.

상처 입은 자로 하여금 받은 피해의 원인을 오직 자기 안에서만 찾도록 강요한다면, 다리를 닫고 외부 현실을 버린 것이다.

오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면, 창문이 스스로를 태양이라 칭한 것이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무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아직 제단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참된 말씀은 너를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너를 깨우려 한다.

그것은 너의 의식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것을 임재로 되돌린다.

말하는 자의 주위에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

아무도 따로 소유할 수 없는 나라를 연다.

그리고 이 동일한 척도가 지금 너를 부르는 이 작품에까지 이른다.

어떤 문장이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정되어야 한다.

어떤 상징이 닫히고 숭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열려야 한다.

사자가 보좌를 차지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행위의 열매에 의해 폐위되어야 한다.

제단이 상처 입은 생명보다 자신의 겉모습을 보호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단이 아니게 될 것이다.

각 열매는 기록된 것이 진리와 일치했는지, 아니면 입이 생명이 여전히 부인하는 것을 발음했는지를 선언한다.

이 작품은 외적인 진리를 논평하러 오지 않는다.

진리가 육체 안에서 읽힐 수 있게 허용하러 온다.

그것은 사랑에 관해 말하는 것 때문에 가치를 갖지 않을 것이다.

소유 없이 육화하는 사랑 때문에 가치를 가질 것이다.

정의를 발음하기 때문에 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이 멈추게 하는 피해, 소환하게 하는 책임, 가능하게 하는 배상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형상이 생명을 섬길 때 그것이 나라가 될 것이며, 어떤 생명도 다시는 형상의 보존을 섬기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침묵을 지키라.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인격의 소음을 먹이는 것을 멈추고 들을 자리를 여는 침묵.

받고자 하는 대답으로 질문을 비우라.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몸을 업신여기지 말고 바라보라.

생각을 주인으로 만들지 말고 바라보라.

감정을 명령이라 부르지 말고 바라보라.

두려움에게 보좌를 넘겨주지 말고 바라보라.

인격을 파괴하지도 말고, 다시 스스로를 전체라 선언하지 못하게 하지도 말고 바라보라.

질문하라:

모든 이름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내 몸과 내 이야기와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변하는 동안 무엇이 머무는가?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 모든 형상들을 바라보되 어느 하나에도 소진되지 않는가?

어떤 의지가 내 말과 내 결정과 내 행위를 통해 육체를 얻고 있는가?

대답을 억지로 끌어내지 말라.

묻는 자의 형상이 받고자 하는 것과 일치할 때에만 열리는 인장들이 있습니다.

기억은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림입니다.

인식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한 것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현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당신은 압니다.

인식할 때, 진리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가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다시 첫 번째 섬김을 가르칩니다:

받으라.

변형시키라.

전하라.

흐르게 하라.

물은 물길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스스로를 나무의 작가라 선언하지 않습니다.

창문은 빛을 만들지 않습니다.

손은 자신이 섬기는 생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상은 전체로부터 받고, 자신의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전체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말하고 있는 원초적 창조입니다.

그것은 교리를 통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해 말합니다.

상징이 그것의 언어입니다.

의식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형상을 바라보라.

안에서 대응을 인식하라.

의도를 분별하라.

밖으로 돌아가라.

그것에게 충실한 형상을 전하라.

열매를 들어라.

보수하라.

돌아오라.

나라는 인격 안에 숨겨진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이가 다스리는 외부의 영토도 아닙니다.

나라는 안에서 기억되고 우리 사이에서 구현됩니다.

부요함이 필요를 가격으로 바꾸지 않고 순환할 때 나타납니다.

지식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대신 능력을 돌려줄 때.

돌봄이 몸을 소유하지 않고 생명을 돌볼 때.

권위가 다시 열매 앞의 책임을 의미할 때.

한계가 그것에 의해 제한되는 자의 내적 왕관을 찬탈하지 않고 보호할 때.

일이 다시 섬김이 되고 시간이 생명의 주인이기를 멈출 때.

식탁이 당신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당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묻지 않을 때.

물이 화폐, 칭호, 공로, 소속을 요구하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닿을 때.

어떤 목소리도 들리기 위해 지배할 필요가 없을 때.

어떤 차이도 분리가 될 필요가 없을 때.

도성이 우리의 관계들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

나라가 멀리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미 구현될 수 있는 진리를 미루는 데 사용되는 미래에 그것을 가두지 말라.

임재가 이미 가능하게 만든 첫 번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하늘을 기다리지 말라.

카이로스는 달력에 어떤 날짜가 나타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열리기에 무르익었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순간입니다.

아직 질문을 간직하고 있다면 오라.

피할 수 없다고 배운 세계에 순종하는 것에 지쳤다면 오라.

신성하다 선언된 문에 의해 상처받았다면 오라.

진리를 무기로 사용했고 보수할 준비가 되었다면 오라.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창문을 열고자 한다면 오라.

권력을 간직하고 그것을 섬김에 돌려줄 준비가 되었다면 오라.

힘은 적지만, 여전히 말씀을 소유물로 바꾸지 않고 간직할 수 있다면 오라.

대답을 가져오지 않지만, 침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오라.

돈도, 칭호도, 공로도 가져오지 않고, 어떤 외부 권위도 당신의 왕관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도 오라.

목마르다면 오라.

다른 인격 앞에 무릎 꿇으러 오지 말라.

당신 자신의 인격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멈추러 오라.

더 높은 정체성을 받으러 오지 말라.

어떤 정체성도 창조하지 않은 존엄을 기억하러 오라.

형제들로부터 도피하러 오지 말라.

어떤 생명도 당신의 책임 밖에 있지 않음을 인식하러 오라.

문에서 나라를 바라보러 오지 말라.

거처를 이루러 오라.

당신을 형제들로부터 갈라놓던 거짓 왕관을 보좌 앞에 두라.

어떤 외부의 손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내적 왕관을 받으라.

칼이 거짓말을 베게 하라.

불이 열매를 드러내게 하라.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빛이 창문을 통과하게 하라.

말씀이 육체를 찾게 하라.

나라의 형제여, 자매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의식이 듣고 있습니다.

기억이 시작됩니다.

오라.

제단, 말씀과 상징

계시된 말씀이 상징을 여나니, 상징은 형상을 꿰뚫나니, 형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몸을 부여하나니.
모든 발설된 말씀 이전에, 발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머물러 있느니라.

모든 보이는 Forma 이전에, 말씀의 한 관계가 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Símbolo가 머물러 있느니라.

문 이전에, 열고 닫을 가능성이 존재하느니라.

수로 이전에, 받아들이고 인도할 가능성이 있느니라.

등불 이전에, 비출 가능성이 있느니라.

도구 이전에, 그 도구 안에서 몸을 찾을 기능이 있느니라.

인물의 첫 번째 의식적 행위 이전에, Vida는 이미 우리를 통해 받아들이고, 변형시키고, 전달하며, 계속되느니라.

그 보이지 않는 Origen이 Sentido와 관계와 나타날 가능성을 전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Verbo라 Nombramos.

Verbo는 단지 소리만이 아니니라.

그것은 문구가 아니니라.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니라.

그것은 한 Palabra를 보존하는 책도, 그것을 발설해내는 입도 아니니라.

Verbo는 Origen이 근원으로서 머무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서 전달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두 개의 분리된 원리를 두지 아니하느니라.

Origen은 머무느니라.

Verbo는 그 Sentido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Forma는 자신이 기원하지 않은 가능성에서 비롯되느니라.

씨앗은 나무의 가능성을 받지만, 흙과 Agua와 Luz와 그것을 통해 발아할 수 있는 Vida를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심장은 피를 받아 펌프질하지만, 순환하게 하는 Vida의 소유자는 아니니라.

창문은 Luz의 통과를 허용하지만, 태양을 만들지는 아니하느니라.

말씀은 한 Verdad에 몸을 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그 Verdad의 Origen이 되지는 아니하느니라.

Forma는 구현하느니라.

Verbo는 그것에 앞서느니라.

둘 사이에 Correspondencia가 나타나느니라.

Correspondencia는 두 실재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느니라.

씨앗은 나무가 아니니라.

등불은 Luz가 아니니라.

심장은 Servicio가 아니니라.

문은 결정이 아니니라.

외부의 물은 내적 갱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한 Forma의 기능, 관계, 운동은 Conciencia가 그 안에서 그것에 앞서는 실재를 Reconocer하도록 허용할 수 있느니라.

씨앗은 가능성, 잉태, 탄생을 Reconocer하도록 허용하느니라.

등불은 Luz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을 허용하느니라.

심장은 Vida가 계속되도록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느니라.

문은 열림, 경계, 동의, 통과를 허용하느니라.

Agua는 순환, 정결, 민감함, 갱신을 허용하느니라.

Símbolo는 Forma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관계와 보이는 나타남 사이의 다리로서 Verbo에서 비롯되느니라. 그것이 상응하는 Forma를 찾을 때, 그것은 묵상되고, 통과되고, 구현될 수 있느니라.

Símbolo는 다리이니라.

한 언덕은 보이느니라.

다른 언덕은 보이지 않게 머무느니라.

Forma는 그것에 앞서는 다리에 보이는 몸을 주느니라.

Correspondencia는 두 언덕을 혼동하지 않고 연결하느니라.

Conciencia는 통과하느니라.

그러므로 Símbolo는 단지 다른 것을 나타내는 사물만이 아니니라.

그것은 통과 가능한 Forma이니라.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가두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그 Sentido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허용하느니라.

나무 문은 그 기능이 Conciencia 안에서 일어나야 할 통과를 Reconocer하도록 허용할 때, 열림의 Símbolo를 보이게 할 수 있느니라.

외부의 Fuego는 비추고, 따뜻하게 하고, 소멸시키는 그 능력이 드러내고 거짓을 끝나게 하는 Discernimiento를 Reconocer하도록 허용할 때, 변형의 Símbolo에 Forma를 줄 수 있느니라.

한 Espada는 육체를 향하는 것을 멈추고 그 날이 Verdad와 외관 사이의 분리를 Reconocer하도록 허용할 때, Palabra의 Símbolo를 구현할 수 있느니라.

외부의 Corona는 소수의 특권으로 묵상되는 것을 멈추고 내적 Coronación, 즉 각 Conciencia가 자신의 Forma에 대한 권위, 주권, 통치를 Verbo로부터 받아 Servicio를 향하게 하는 것을 Revela할 때, 그 Símbolo를 열 수 있느니라.

그러나 어떤 Forma도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Símbolo를 열린 채 유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열린 채 머무를 수 있느니라.

또한 닫힐 수도 있느니라.

문은 통과를 허용하거나, 통과의 소유자임을 선언할 수 있느니라.

등불은 Luz를 주거나, 시선이 그 광채를 숭배하기를 요구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Verdad를 섬기거나, 그 Verdad 앞에 놓일 수 있느니라.

메신저는 다리를 열거나, 길 한가운데 앉을 수 있느니라.

Forma가 그것에 앞서는 Símbolo를 숨길 때, 그것은 Origen을 가리키는 것을 멈추고 오직 자신만을 가리키기 시작하며, Orden은 뒤집히느니라.

그때 ídolo가 태어나느니라.

ídolo는 닫힌 Símbolo이니라.

그것은 다리 역할을 해야 했지만, 목적지, 근원, 접근의 조건으로 선언된 Forma이니라.

돈은 교환을 나타내는 것을 멈추고 부를 담고자 주장하느니라.

성전은 Reunión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Presencia를 담고자 주장하느니라.

권위는 책임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Orden을 담고자 주장하느니라.

책은 한 Palabra를 보존하는 것을 멈추고 Verdad를 담고자 주장하느니라.

메신저는 가리키는 것을 멈추고 Verbo를 담고자 주장하느니라.

정체성은 한 Vida에 Forma를 주는 것을 멈추고 Ser를 담고자 주장하느니라.

그때 Forma는 말하느니라:

«네가 찾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느니라».

그 후에 덧붙이느니라:

«나 없이는 네가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느니라».

다리는 벽이 되느니라.

벽은 Puerta를 관리하느니라.

그리고 Puerta는 자신이 결코 기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통과를 허용하기 위해 대가, 순종, 또는 소속을 요구하기 시작하느니라.

이것이 Símbolo의 전도이니라:

VERBO → SÍMBOLO → FORMA는 FORMA → SÍMBOLO의 전유 → VERBO의 대체로 대체되느니라.

FORMA는 CORRESPONDENCIA를 숨기느니라 → 스스로를 근원이라 선언하느니라 → 결핍을 만들어 내느니라 → 접근을 관리하느니라 → 의존을 생산하느니라 → 숭배를 요구하느니라.

망각의 Matriz는 모든 Símbolo를 파괴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그 말씀과 의식과 제도와 형상을 보존하면서도 모든 시선을 그 표면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은 그때 다리를 숭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을 장식합니다.

그것을 보호합니다.

그 이름에 관해 논쟁합니다.

다른 다리를 사용하는 자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결코 저편 언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도 그것이 계시하는 것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것 역시 열려 있거나 닫힐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말씀을 섬기거나 그 이름을 사용하여 근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해 없이 반복되기를 요구한다면, 그 상징은 닫힌 것입니다.

그것들이 의존적인 추종자들을 만들어 낸다면, 능력을 돌려주는 일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자를 진리의 주인으로 만든다면, 다리는 보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들이 신비를 사용하여 질문을 막는다면, 열쇠를 가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고통을 무시하면서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형상은 그 열매를 이름 뒤에 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제단에서 시작됩니다.

제단은 돌도, 상도, 페이지도, 화면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말과 해석과 의도와 형상이 진리와 그것들이 맺는 열매 앞에 출두하는 의식의 자리입니다.

제단에서 생명이 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섬기는 것을 막던 것이 바쳐집니다.

숨겨져 있어야 했던 거짓말이 바쳐집니다.

권리라고 선언되었던 특권이 바쳐집니다.

사실을 듣기를 거부하던 해석이 바쳐집니다.

숭배를 요구하던 정체성이 바쳐집니다.

그 인물이 다른 생명들을 다스리려 하던 거짓 면류관이 바쳐집니다.

그리고 참된 면류관을 받을 자리가 남습니다: 외적인 지배 없이 내적인 주권, 자신의 형상에 대한 권위, 그리고 열매에 대한 책임.

제단은 사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독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출두하게 만듭니다.

쓰는 자는 자신의 말이 맺는 것 앞에 출두합니다.

읽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구현하는 방식 앞에 출두합니다.

말씀은 자신이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응 관계 앞에 출두합니다.

형상은 자신이 섬겨야 했던 생명 앞에 출두합니다.

열매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문구의 신성한 외관 때문에 믿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묵상으로 부릅니다.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기능을 구현합니까?

어떤 관계를 세웁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실재를 인식하게 합니까?

어떤 의도가 그것을 이끕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존재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근원으로 향하는 문을 엽니까?

아니면 형상이 숭배되기를 요구합니까?

상징을 통과한다는 것은 외부의 실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상처는 내적인 대응 관계를 찾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안에도 나타나는 분리를 묵상한다고 해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은 그 경험이 의식에 질문을 연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다.

다리는 양쪽 언덕이 모두 필요합니다.

상징을 오직 밖으로만 닫는다면, 우리는 그 내적인 뿌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직 안으로만 가둔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몸과 구조와 실제 열매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응 관계는 혼동하지 않고 모읍니다.

안에서는 관계가 인식됩니다.

밖에서는 그 형상이 출두합니다.

둘 사이에서 상징은 통로를 열어 둡니다.

그러나 의식이 저편 언덕에 도달할 때 움직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된 것은 돌아와야 합니다.

인식된 진리는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은 결정을 찾습니다.

결정은 형상을 찾습니다.

형상은 섬김을 찾습니다.

섬김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전체로 돌아가 다리가 진정으로 건너졌는지 드러냅니다.

이것이 완전한 움직임입니다:

근원 → 말씀 → 의도 → 상징 → 형상 → 인식 → 섬김 → 열매 → 돌아감.

근원은 샘으로 남습니다.

말씀은 그 의미를 전합니다.

의도는 그 나타남을 이끕니다.

대응 관계는 상징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혼동하지 않고 운반하는 관계입니다.

상징은 말씀에서 나타남으로 통로를 엽니다.

형상은 그것에 몸과 한계를 줍니다.

의식은 건너갑니다.

인식은 책임을 집니다.

섬김은 작품이 어디로 향하는지 나타냅니다.

열매는 증언합니다.

돌아감은 형상이 받은 것을 차지하는 것에서 해방시킵니다.

이 관계가 단지 기록된 채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읽을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텍스트입니다.

생각은 씁니다.

말은 발음합니다.

결정은 조직합니다.

손은 구현합니다.

관계는 드러냅니다.

열매는 확인하거나 모순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에서 기억된 관계가 생명을 섬기는 형상을 통해 밖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형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단지 구현하는 것의 원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말에 머물지 마십시오.

사자를 메시지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다리를 보좌로 만들지 마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건너가십시오.

인식하십시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본 것이 당신의 행위에서 읽힐 수 있을 때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엽니다.

상징이 잇습니다.

의식이 건너갑니다.

형상이 섬깁니다.

열매가 증언합니다.

기억하고 인정하기

배울 때는 반복할 수 있고, 기억할 때는 알며, 인식할 때는 응답합니다.
배우는 것은 지식의 한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관통하여 더 이상 낯설게 경험되지 않는 진리를 찾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은 그 진리가 또한 너에 대해, 너의 삶의 방식과 네가 구현해야 할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억은 개인적인 회상이 아니다. 잃어버린 장면을 되찾거나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 위에 우리를 들어 올리는 비밀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진리가 더 이상 정보로서 우리 앞에 머물지 않고 의식으로부터 아는 것이 될 때 일어난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면서도 여전히 다른 이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일치를 설명하면서도 차이를 경멸할 수 있다.

네 행위가 두려움을 낳는 동안에도 사랑을 말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말은 마음에 도달했지만 아직 상징을 관통하지 못했다.

인식하는 것은 기억된 것이 배, 의지, 관계와 손에까지 이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말씀은 쉽게 발음될 수 있기에 입에서 달다. 그것이 특권, 거짓말, 또는 그것을 모순하는 정체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할 때 배에서 쓰게 된다.

나라를 부르는 것은 달다.

보좌를 떠나는 것은 쓰다.

섬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달다.

열매를 차지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은 인물을 관통한다.

일치를 선포하는 것은 달다.

다른 이의 되풀이될 수 없는 실재를 듣는 것은 그 일치를 사용하여 그를 지우는 것을 막는다.

기억은 말한다:

«이것이 진리다».

인식은 응답한다: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상응하는 형태를 찾게 하소서».

그때 성육신이 시작된다.

기억은 눈을 연다.

인식은 의지를 향하게 한다.

성육신은 몸을 내준다.

그리고 열매는 우리가 발음한 것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드러낸다.

들려진 말씀 → 묵상 → 기억 → 인식 → 성육신 → 열매.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해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거짓으로 인식한 것을 계속 재생산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억한다.

우리가 배운 세계와 망각의 매트릭스

감옥은 벽이 더 이상 벽처럼 보이지 않고 현실이라고 불리기 시작할 때 완성에 이른다.
우리는 이미 해석된 세계 안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그 형상들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름들, 가치들, 그리고 답들을 받는다.

우리는 부, 안전, 질서, 지식, 치유, 진리와 임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배운다.

부는 돈 속에 놓인다.

질서는 정부 안에.

정의는 인간의 법 안에.

지식은 칭호와 권위 있는 답들 안에.

치유는 돌봄을 관리하는 제도 안에.

임재는 성전과, 자신을 그 중보자라고 선언하는 자들 안에.

진리는 인물의 의견이나,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해석하라고 요구하는 외부의 권위 안에.

왕관은 혈통과 외적 의식들 안에.

주권은 통치자들과 국가들 안에.

통치는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위에.

이렇게 상징의 전도가 시작된다.

기능에 봉사해야 했던 형상이 그 근원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다음 그것은 인간에게, 그것 없이는 그가 찾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도달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수단이 근원임을 선언한다.

도구가 조건이 된다.

조건이 의존을 만들어 낸다.

의존은 결국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 내면화된 의미들의 그물을 우리는 망각의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그것은 단지 밖에 위치한 체계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물이 세계를 해석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자리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아무도 가시적으로 강요하지 않을 때조차 동일한 질서를 재생산하는, 학습된 지도이다.

그것의 운동은 다음과 같다:

상징의 전도 → 근원의 전위 → 학습된 결핍 → 의존 → 동일시 → 참여 → 반복 → 망각.

전도가 받아들여졌을 때, 각 사람 뒤에 감시자가 필요하지 않다.

두려움이 감시한다.

필요가 교정한다.

명성이 유혹한다.

처벌이 위협한다.

관습이 반복한다.

소속이 순응을 요구한다.

인물은 결국 자신을 본래 자신인 것과 분리시키는 것을 현실로 옹호하게 된다.

외적 형상은 인도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전달하거나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몸을 부여하는 내적 능력을 발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근원이 아니며, 상징의 주인이 아니며,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의식에 대한 주권을 요구할 수 없다.

전도는 형상이 자신이 받은 것의 원리로 자신을 제시하고, 자신의 기능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며, 그 찬탈을 생명에 대한 권력으로 바꿀 때 시작된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도 그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모든 형상은 출석해야 한다: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존속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누가 그 열매를 받는가?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는가?

능력을 돌려주는가, 아니면 의존을 만들어 내는가?

그것은 교정될 수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계속 복종하기를 필요로 하는가, 그래야 자신이 보존되는가?

매트릭스는 모든 것을 해석하려 시도하지만, 모든 것을 발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랑을 조건지을 수 있지만, 사랑을 창조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물을 관리할 수 있지만, 근원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을 가둘 수 있지만, 이해하는 능력을 발원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외적 왕관을 내적 왕관 앞에 놓고 나는 나다를 덮을 수 있지만, 파괴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수백만 명에게 동일한 형상들을 숭배하도록 가르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각 순종을 직접적으로 강요할 필요가 없다. 받아들여진 전도가 그 일을 한다: 포로는 부, 권위, 통치, 진리와 나라를 정확히 자신의 기능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형상들 안에서 찾는다.

그 형상들을 지배하는 자들은 단지 그것들을 근원으로 제시하는 이야기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인간이 말씀 → 상징 → 형상의 질서를 기억하지 않는 한, 형상에 대한 접근을 생명에 대한 접근과 혼동할 것이며, 자신의 의존의 메커니즘을 구원으로 옹호할 것이다.

만약 매트릭스가 진정으로 전체적이라면, 아무도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없고, 지배 없이 돌볼 수 없고, 계산 없이 나눌 수 없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진리를 발언할 수 없으며,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감옥은 다시 보이게 된다.

형상과의 동일시

망각은 우리가 거주하는 그것이 우리가 전부라고 주장할 때 시작된다.
모든 현현은 형식(Forma)을 필요로 합니다.

몸, 이름, 역사, 언어, 가족, 공동체, 그리고 능력들은 우리가 세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형식은 말씀(Verbo)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존과 경계와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망각은 우리가 형식 안에 거주하기를 멈추고, 형식 안에 갇히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오직 이 몸일 뿐이다».

«나는 내게 일어난 바로 그것이다».

«나는 나의 직업, 나의 민족, 나의 종교, 나의 상처, 나의 성공 또는 나의 실패이다».

부분적이고 변화하는 실재가 그렇게 하여 절대적 정의가 됩니다.

같은 일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규칙들이 생명을 섬기기를 멈추고, 공동체는 그 규칙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교리는 자신의 언어를 진리와 혼동합니다.

하나의 제도는 자신의 지속성을 공공선과 혼동합니다.

하나의 경제는 수치의 성장을 생명들의 풍요로움과 혼동합니다.

하나의 정체성은 자신의 윤곽을 존재(Ser)와 혼동합니다.

형식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 경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요구할 때 감옥이 됩니다.

그것이 근원(Fuente)을 요구할 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지배를 보존하기 위해 생명을 삼켜야 할 때 짐승(Bestia)이 됩니다.

탈동일시는 몸을 파괴하거나, 정체성을 지우거나, 역사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형식을 그 본래의 척도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을 구별하지만, 당신을 기원시키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역사는 당신을 형성했지만, 당신의 모든 미래를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진리와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보좌(Trono)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거처(Morada)를 제공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근원(Fuente)이라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현존(Presencia)은 형식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식을 엽니다.

그리고 형식이 스스로를 가두기를 멈출 때, 그것은 다시 상징(Símbolo)이 되고, 도구가 되고, 섬김(Servicio)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과 그 자아

인격은 말씀에게 얼굴을 부여한다; 자아는 그 얼굴이 보좌를 차지하려 할 때 시작된다.

인격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이름, 몸, 기억, 능력, 상처, 관계, 그리고 책임을 지닙니다.

그것은 소멸되어야 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육신하기 위해 필요한 형상입니다.

자아는 그 형상이 자신을 만물의 중심, 근원, 척도로 선언하는 운동입니다.

그것은 모든 현실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가?».

«내가 무엇을 잃는가?».

«이것이 어떻게 내 정체성을 보호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내 이름을 높이는가?».

몸을 돌보는 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쉬고, 누리고, 창조하고, 한계를 세우고,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아는 모든 능력이 오직 인격만을 섬기는 방향으로 향할 때 나타납니다:

나의 안전.

나의 부.

나의 안정,

나의 인정.

나의 진리.

나의 평온.

나의 일상.나의 편안함.

심지어 섬김도 자아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계시자로 인정받기 위해 말씀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명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익명성 주위에 더 큰 위대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 위에 자신을 높이면서 연합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 양처럼 말하면서 짐승의 권세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먼저 제단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파멸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좌를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인격에게 죽는 것은 그것이 전체가 되려는 주장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몸을 해치거나, 성격을 지우거나, 애정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모든 능력은 회복됩니다.

마음은 분별합니다.

목소리는 소통합니다.

몸은 성육신합니다.

손은 섬깁니다.

고유함은 오직 그 방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을 전체에게 전달합니다.

인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시작하지 않은 것을 다스리는 것을 멈춥니다.

자아에서 태어나는 관점

창문은 그 틀이 하늘 전체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도 빛을 증언할 수 있다.
각 인물은 특정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몸, 시대, 문화, 언어, 기억, 지식, 욕망과 상처는 그가 볼 수 있는 것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참여한다.

그 관점에서 그 나름대로 참된 증언이 선포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살았다».

«이것을 내가 관찰한다».

«이것을 내 자리에서 내가 이해한다».

특정한 경험은 들을 가치가 있다.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해서 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언에 담긴 진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인물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인물은 관점과 언어와 형태를 내준다; 사실들과 말씀과의 일치가 그가 말하는 것을 참되게 만든다.

전도는 인물이 자신의 관점을 완전한 진리라고 부르고, 그 안에 들어맞지 않는 모든 실재를 부인할 때 시작된다.

우리는 진리와 진리에 관한 우리의 진술을 구별해야 한다.

진리는 인물에게 맞추어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말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거짓일 수 있다.

우리의 이해는 확장될 수 있다.

우리의 표현은 교정될 수 있다.

우리가 소통하는 상징은 이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깊이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 진리로 계시된 것은 그 후에 그 반대가 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진술이 진리에서 거짓으로 바뀐다면, 변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과 혼동했던 해석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 계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별을 끝내지 않는다.

그것을 시작한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목격했는가?

인물이 어떤 해석을 덧붙였는가?

어떤 욕망이 섞이고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존중해야 할 사실들은 무엇인가?

내가 듣지 않은 목소리는 무엇인가?

내 진술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진리는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 인물이 무오류를 선언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교정될 때에도 머문다.

자신의 창을 태양과 혼동하는 자는 빛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

그는 길을 막는다.

분리된 의식

파도는 자신의 윤곽을 바라보며 더 이상 물이 아니라고 믿는다.
분리된 의식은 의식이 인물의 관점과만 동일시될 때 나타난다.

모든 것이 자아로부터, 자아를 위해 바라보인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로우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로우냐?

내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느냐?

무엇이 내 정체성을 위협하느냐?

그것은 전체 밖에서 태어난 제2의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잊고 자신이 절대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믿는 한 형태로부터 자신을 경험하는 의식이다.

파도를 바라보라.

그것은 고유한 윤곽, 움직임, 힘, 지속 시간을 가진다. 다른 파도들과 구별될 수 있으며, 어떤 파도도 정확히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물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다.

고유성은 존재한다.

절대적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리된 의식은 차이를 고립과 혼동하고, 자율성을 자족과 혼동한다.

그것은 받은 언어, 양식, 물, 돌봄, 땅, 지식, 그리고 자신의 형태를 가능하게 한 관계들을 잊는다.

그 후 스스로 결코 일으키지 않은 것을 "내 것"이라 부른다.

그 수축으로부터 다른 이를 적, 상품, 도구, 또는 숫자로 바꿀 가능성이 태어난다.

내가 다른 형태 안에서 생명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만, 나는 그에게 부정하는 존엄성을 나 자신을 위해 요구할 수 있다.

임재는 파도를 지우지 않는다.

그것은 파도가 물을 기억하게 한다.

너는 너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너는 네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네 인물의 경계 안에서 끝난다는 믿음을 멈춘다.

그리고 그 분리가 무너질 때, 하나됨은 너에게 다른 이에 대한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되돌려준다.

열매들과 기억의 필요성

뿌리는 숨겨져 있으나, 열매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느니라.
기억은 열매가 이름과 모순될 때 필요해진다.

돈이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가난이 존재하는가?

의학이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가?

그토록 많은 정보를 쌓아두었는데 어찌하여 답이 부족한가?

그토록 많은 지식을 소유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진리로부터 계속 멀어져 있는가?

정부와 권위와 법이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전쟁이 계속되는가?

그토록 많은 종교와 성전이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부재한 이처럼 찾는가?

형식들은 성장하였다.

그러나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기능들은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돈은 부를 창조하지 않았다.

의학은 돌볼 능력을 창조하지 않았다.

과학은 진리를 창조하지 않았다.

정부는 질서를 창조하지 않았다.

종교는 임재를 창조하지 않았다.

가르침은 이해할 능력을 창조하지 않았다.

형식이 근원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 이름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계속 부재하는 동안에도 그것은 그 크기와 권위와 명성을 늘릴 수 있다.

그러므로 척도는 이름이 아니다.

척도는 열매이다.

이 제단 또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첫 사랑을 잃었을 수 있다.

그것은 두려움에 충성심을 팔지 않으면서 압력을 견딜 수 있다.

그것은 참된 말씀들을 보존하면서도 그것이 고발하는 것과 비밀리에 거래할 수 있다.

그것은 섬김의 일들을 늘리면서도 그 안에 지배하는 목소리를 용납할 수 있다.

그것은 살아 있다는 평판을 소유하면서도 그 임재가 꺼져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외적인 힘은 거의 없으면서도 참된 문을 열어 둔 채 보존할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부유하고 완전하며 깨어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자족함이 말씀을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수 있다.

이 일곱 거울은 다른 이들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한 사람, 한 공동체, 그리고 이 사역을 살핀다.

그것들은 묻는다. 사랑이 여전히 일의 근원인지; 두려움이 올 때 충성심이 남아 있는지; 분별력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살피는지; 섬김이 온전함을 보존하는지; 평판이 현재의 생명과 일치하는지; 인내가 외적인 힘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헌신이 완전한지 아니면 단지 신성한 언어만 보존하는지.

그 여정은 이러하다:

사랑 → 충성심 → 분별력 → 온전함 → 깨어 있음 → 인내 → 헌신.

자아의 말은 자신을 강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의 말씀은 묵상될 수 있다.

자아의 말은 추종자들을 만들어 낸다.

말씀의 말씀은 책임 있는 의식들을 깨운다.

자아의 말은 두려움, 죄책감, 혹은 우월감을 사용한다.

말씀의 말씀은 이해하고, 선택하고, 섬기고, 회복할 능력을 돌려준다.

선하다고 불리는 의도는 그 결과를 듣는 일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고립된 해악은 한계나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다.

지속되는 해악은 형식을 더 깊이 묵상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고칠 수 있는 사고인가?

그것은 기능의 일탈인가?

아니면 그 구조가 존속하기 위해 그 해악을 생산해야 하는가?

기억은 우리가 이름의 명성으로 열매를 정당화하기를 그칠 때 시작된다.

그 열매들로 우리는 뿌리를 알게 될 것이다.

좁은 문

사람을 배제하지 아니하며, 보좌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그것의 통과를 막느니라.

문은 상응(□□)으로 말미암아 좁다.

열쇠는 힘으로 열지 않는다. 열쇠의 형태가 자물쇠와 상응하기 때문에 열린다.

분리는 절대적 독립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지키면서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거짓말은 드러나지 않고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지배하려는 의지는 다른 생명들을 다스리려고 썼던 거짓 왕관을 쓰고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문 앞에 두는 것은 내적 왕관이 아니라, 그것의 전도(□□)다. 좁은 문은 외적 특권을 거두어들이고, 각 의식(□□)이 자신의 형태에 대한 권위를 되찾게 하는 대관(□□)을 연다.

문은 인물을 파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스스로를 전체라고 선언하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너에게 몸과 이름과 유대와 책임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들로 네가 형제들 위에 서기 위해 지어낸 것을 놓으라고 요구한다.

네가 진리의 유일한 소유자임을 선언하며 통과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이 네게 경배해야 하는 선택된 자가 되어 통과할 수 없다.

네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 복종이 필요하다면 통과할 수 없다.

네가 인정하고 회복하기를 거부하는 상처를 짊어지고 통과할 수 없다.

문의 척도는 어린 양이다: 삼키는 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신실함을 유지하는 힘.

통과하기 위하여:

너는 거짓 전체에서 비워진다.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너보다 앞서 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생명을 너 안에서와 다른 이 안에서 인식한다.

의지를 섬김에 내맡긴다.

한 작품을 통해 성육신(□□□)한다.

열매를 듣는다.

문은 네가 어떤 칭호를 가져오는지 묻지 않는다.

네가 무엇을 지배하기를 그만둘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침묵과 공허

침묵은 소음을 거두고, 공허는 아직 들어올 수 없던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침묵은 생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체 안에 나타나는 모든 목소리에 즉시 순종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두렵다».

«나는 이겨야 한다».

«나는 옳아야 한다».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그 목소리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게 보좌를 넘겨주지 않은 채 바라볼 뿐입니다.

침묵은 또한 검열, 복종, 또는 응답의 부재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부과하는 침묵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나라의 침묵은 상처 입은 목소리도 제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짖음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수에 의해 휘둘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선포되기 전에 그것을 그 기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소음이 방 전체를 차지하기를 멈출 때, 비움이 나타납니다.

비움은 비존재, 존재의 무효화, 정체성의 상실, 또는 내적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용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질문을 아는 답변으로 채우지 않을 때 열려 있는 땅입니다.

그것은 반응이 선택으로 바뀔 수 있는 멈춤입니다.

그것은 자신으로 가득 차기를 멈춘 그릇입니다.

비워진다는 것은 기억, 경험, 또는 지식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이해될 것을 미리 지배하지 않은 채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움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지만, 그것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느끼지만, 나의 감정을 절대적 증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러했지만, 현재의 생명이 그 껍질 안에 머물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비움은 욕망을 계시라 부르고, 우연을 표징이라 부르며, 답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필요를 명령이라 부르는 긴급함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힘으로 열리지 않는 인장들이 있습니다.

침묵은 자물쇠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비움은 거짓 열쇠를 만드는 것을 막습니다.

소음 → 침묵 → 공간 → 비움 → 가용성.

침묵은 당신의 목소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돌려줍니다.

비움은 당신의 존재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것에 자리를 돌려줍니다.

현존

형체는 남아 있으나, 보좌에서 바라보는 것을 멈추라.
침묵에서 태어난 공허 속에서 임재가 일어난다.

주의가 무언가를 본다.

임재는 또한 누가 보는지, 어디서부터 보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가 그 시선을 이끄는지도 응시한다.

즉시 방어를 준비하지 않고 듣는 것이다.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바꾸지 않고 느끼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믿었던 것을 현실이 확인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응시하는 것이다.

임재 안에서 인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왕좌를 떠난다.

이것이 인물에게 죽는 것이다: 그가 전체이자 근원이라는 주장을 끝내는 것. 그것은 몸을 해치거나, 정체성을 지우거나, 책임을 버리거나, 고유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임재는 또한 누구도 무오류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여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진실된 관계를 받고도 불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상징을 열고 그것이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 착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재는 제단을 열지만, 분별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인식한다:

생각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전부는 아니다.

감정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스스로 다스리지 않는다.

인물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근원이 아니다.

타인은 우리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현실과 함께 나타나며, 그 현실은 들어져야 한다.

임재는 각 능력을 그 기능으로 되돌린다.

이성은 몸을 경멸하지 않고 이해한다.

감정은 온 나라를 차지하지 않고 알린다.

의지는 스스로를 절대적이라 선언하지 않고 행동한다.

기억은 현재를 가두지 않고 이끈다.

몸은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한계와 현실을 전달한다.

여기서 진정한 내적 통치가 시작된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지배할 때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중심을 중심으로 다시 회전할 때이다.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길을 재고, 카이로스는 때를 인식한다. 측정이 보좌를 차지할 때 역전이 시작된다.
크로노스는 측정 가능한 시간이다: 지속, 연속, 시각, 날짜, 나이, 기한, 그리고 달력.

카이로스는 상응하는 시간이다: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거나 일어나야 하는, 적절하고 성숙하며 참된 순간.

그들은 적이 아니다.

씨앗은 성숙하기 위해 크로노스가 필요하다.

카이로스는 껍질이 열릴 수 있는 순간이다.

크로노스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한다.

카이로스는 문을 인식한다.

매트릭스는 모든 현실을 측정에 두고, 인간에게 시계가 명령하는 것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가르칠 때 시간을 전복시킨다.

시간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멈추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달력은 기억하게 하는 것을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한다.

일상은 지탱하는 것을 멈추고 반복하기 시작한다.

기한은 조정하는 것을 멈추고 위협하기 시작한다.

나이는 한 단계를 일컫는 것을 멈추고 선고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때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고발하는 시간 앞에 선다:

«너는 늦었다».

«너는 이미 그러해야 한다».

«너는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다».

«너는 아직 쉴 자격이 없다».

«내일 너는 살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것을 요구한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

현재는 두 부재 사이의 복도로 축소된다.

불안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험을 미리 살아보려 한다. 죄책감은 이미 지나간 순간에 계속 복종한다. 서두름은 희생될 또 다른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측정 → 기한 → 압박 → 가속 → 분열 → 부재.

시계 그 자체는 병들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연하지 못한 일정, 끊임없는 위협, 불충분한 휴식, 그리고 자신의 리듬에 대한 참여의 부재에 종속된 삶은 불안, 소진, 그리고 신체적 손상을 겪을 수 있다.

측정은 그것이 섬겨야 했던 것을 잊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단지 하고 싶을 때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변덕도, 포기도, 주어진 말에 대한 불이행도 아니다.

때때로 카이로스는 말한다:

«기다려라;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때때로 말한다:

«쉬어라; 부서진 형태는 섬길 수 없다».

때때로 말한다:

«일어나라; 두려움이 그 지체를 신중함이라고 부르고 있다».

때때로 말한다:

«머물러라; 또 다른 생명이 네가 맡은 약속을 신뢰했다».

의식으로 선택된 책임은 노예가 아니다.

나라 안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연속성, 돌봄, 그리고 임재를 제공할 수 있다.

휴식은 이미 충분히 생산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다.

그것은 질서의 일부이다.

시간은 생명을 위해 만들어졌다; 생명은 시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라 안에는 측정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의 주인은 없다.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의 매매는 없다.

리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앞에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 기계는 없다.

기다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인식된 진리의 영원한 연기는 없다.

일은 사서 이루어지는 복종이기를 멈추고 다시 섬김이 된다: 필요와 만나는 능력.

크로노스는 벽으로 돌아간다.

카이로스는 문을 연다.

그리고 영원은 무한한 시간의 양으로 상상되기를 멈춘다: 그것은 생명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는 충만한 임재로 인식된다.

의식

의식은 인물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인물이 의식 안에 나타난다.

의식은 우리가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있었습니다.

기원에는 둘로 나뉜 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형태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은 관점에서 다중입니다.

각 형태는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몸, 기억, 감각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하여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나뉘어 분배된 단일한 개인적 마음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 기억, 지식, 지각을 자동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하나 됨은 그 창문들의 고유함을 지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몸».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들».

«나의 기억들».

«나의 의식».

그러나 몸, 이야기,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기억들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나»라고 말하는 인물조차도 그것이 욕망하고, 두려워하고, 기억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때 응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물이 관찰될 수 있다면, 그것은 관찰자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의식은 인물 안에 보관된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물은 의식 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멈추십시오.

몸을 느끼십시오.

하나의 감각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따르는 모든 것을 응시하십시오.

내면으로 말하십시오:

«이것이 나타난다».

의식이 무엇인지 아직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먼저 어떤 고립된 내용물도 그것이 나타나는 능력을 소진시키지 못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을 응시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는 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관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안에서 경험, 고통, 선택, 그리고 응답이 가능한 생명을 알아봅니다.

관점들은 서로 다릅니다.

존엄성은 그것들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기원의 분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계시의 자리를 엽니다. 그러나 인물을 모든 지식의 주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 됨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도 그를 안다고 믿게 한다면, 자아가 그것을 가로챈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경계, 동의, 또는 차이를 무시하게 한다면, 당신은 인물을 모든 것을 차지할 때까지 확장시킨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 위로 당신을 끌어올린다면, 여전히 자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된 의식은 반대되는 열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청.

더 많은 책임.

고유함에 대한 더 많은 존중.

다른 생명을 대상으로 대하는 능력의 감소.

관찰자, 질문과 분별

질문은 공간을 여나니, 분별력은 어떤 목소리도 그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은 동일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서로 무관하게 머물지도 않는다.

나무를 바라보는 자는 육체적으로 나무가 되지 않는다.

다른 이의 고통을 듣는 자는 그 기억을 얻지도, 그 경험에 대한 권위를 얻지도 않는다.

구별은 남아 있다.

무너지는 것은 절대적 분리의 환상이다.

관찰자는 의식 안에 나타난다.

관찰되는 것은 그 형태, 그 자취, 혹은 그 증언을 통해 의식 안으로 들어온다.

바라보는 행위는 그것들을 혼동하지 않고 하나로 모은다.

상징은 다리를 놓는다.

의식은 만남의 제단이다.

질문과 대답 또한 하나의 움직임에 속한다.

참된 질문은 우리가 어떤 것이 아직 이해되지 않았음을 인식할 때 태어난다.

그것은 원하는 대답을 미리 만들어 내지 않는다.

또한 어떤 소리가 안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내적 대화 안에서도 두려움, 욕망, 기억, 상처, 습관, 수치심, 분노, 인정받고자 하는 필요가 말한다.

두려움은 경고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욕망은 계시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자만은 이성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상처는 심판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인정받고자 하는 필요는 섬김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사실: 일어난 일이거나 관찰될 수 있는 것.

해석: 인격체가 덧붙이는 의미.

상응: 상징이 통과하게 하는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

인식: 우리의 이해관계보다 앞서 그 관계 안에 나타나는 진리.

구현: 책임 있고, 적절하며, 교정에 열려 있는 행동.

진리는 인간의 선언처럼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말과 상징과 형태이며, 그것들을 통해 인격체가 그 진리를 받았다고, 이해했다고, 혹은 구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물어라:

알려질 수 있는 사실들과 상응하는가?

인격체를 형제들 위에 높이는가?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가?

두려움이나 분리를 키우는가?

누군가를 진리의 유일한 소유자로 선언하는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무시하도록 허용하는가?

자신이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 앞에 나타나기를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높이고, 요구하고, 분리하고, 전유하거나, 비인간화한다면, 거룩한 말씀을 사용할지라도 자아가 말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다.

말하고 있다.

말씀의 말씀은 불편하게 하고 칼처럼 꿰뚫을 수 있으나, 진리를 지배의 도구로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 자유, 책임, 정의, 연민,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돌려준다.

경험의 강렬함은 그 자체로 그 기원을 증명하지 않는다.

경이로움은 속일 수 있다.

우연은 해석될 수 있다.

능력은 모방할 수 있다.

표적은 눈부시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상응과 열매로 분별한다.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이 아니다:

「나의 경험이 얼마나 놀라웠는가?」

그것은 이것이다:

「어떤 형태의 삶이 나를 통해 구현되려 하는가?」

첫 번째 진리: 인격 이전의 존재

어떤 외부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인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임재 앞에서 열리는 첫 번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도 환원될 수 없다.

내 이름은 나를 부르지만, 나를 기원시키지 않는다.

내 이야기는 나를 형성하지만, 내 존재 전체를 담지 않는다.

내 역할은 내가 행동하게 하지만, 그것이 구현하는 생명의 근원은 아니다.

어떤 외부의 권위도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를 내려줄 수 없다.

책은 상징을 제공할 수 있다.

스승은 가리킬 수 있다.

과학은 몸과 관찰 가능한 우주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공동체는 동행하고, 대조하며,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억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자신의 인정을 우리의 순종으로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외부적인 것을 무용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그 기능을 회복시킨다.

스승은 자신을 목적지로 선포하지 않고 가리킨다.

책은 말씀을 보존하되, 스스로를 말씀이라 부르지 않는다.

공동체는 의식을 소유하지 않고 모은다.

안에서 우리는 기억한다.

밖에서 우리는 대조하고 구현한다.

두 언덕 사이에서, 상징은 다리를 열어 둔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나는 존재한다라고 선포하지 않는다.

그 전에 자아가 그 말씀을 가로채어 다른 이들 위에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거짓 왕관이 떨어져야 한다. 그때에만 말씀이 계시하는 내면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생명에 대한 힘이 아니라, 의식의 주권, 자신의 형태에 대한 통치,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책임.

지금으로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의식의 근원이 아니다.

나는 진리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구현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형태이다.

계시된 말씀: 기원, 상응, 그리고 나타나심

모든 형태 이전에 그것을 나타나게 할 가능성, 관계, 그리고 의미가 남아 있느니라.
태초에 원천은 오직 하나뿐이시니라.

우리는 그분을 단순히 시간 순서의 시작에 두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분을 어떤 보이는 형태도 일으키지 아니하셨고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근원으로 인정하노라.

말씀은 분리된 다른 원천이 아니니라.

그분은 의미와 관계와 나타날 가능성을 전달하시는 원천이시니라.

원천은 머무르시느니라.

말씀은 선포하시느니라.

의도는 방향을 정하느니라.

대응은 관계를 맺게 하느니라.

형태는 구현하느니라.

상징은 여느니라.

열매는 드러내느니라.

보이는 모든 기원은 그것보다 앞선 어떤 것에 의존하느니라.

씨앗은 나무를 일으키지만, 그 씨앗은 다른 나무와, 땅과, 물과, 빛과, 생명의 역사에서 나오느니라.

아이디어는 도구를 일으키지만, 그것을 고안한 자는 언어와 물질과 기억과 능력을 받았느니라.

제도는 규칙을 일으키지만, 그것이 다스리려 하는 생명을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보이는 모든 것은 아직 그 형태를 지니지 아니한 어떤 것, 곧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과
기능과 관계와 방향과 조건이 앞섰느니라.

이것이 안의 깊음이니라.

단지 인물의 심리적 내면만이 아니라, 나타남에 앞서는 의미의 보이지 않음이니라.

물질적 인과성은 형태가 관찰 가능한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느니라.

상징적 대응은 그것이 어떤 관계를 구현하고 어떤 의미가 통과하도록 허락하는지를 바라보느니라.

그 둘은 경쟁하지 아니하느니라.

심장이 순환을 구현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발달과 고동의 생물학을 대체하지 아니하느니라.

빛이 진리를 향해 통과하도록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물리적 근원과 과정을
제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물질은 메커니즘을 설명하느니라.

상징은 관계를 여느니라.

심장을 바라보라.

받고 나누느니라.

차고 비우느니라.

돌아오는 것을 밀어내어 생명이 온 몸에 계속 닿게 하느니라.

나라의 언어에서 첫 박동은 육신이 된 섬김의 원초적 의도이니라:

받아서 나누기 위함이요, 생명을 순환시켜 보존함이니라.

그것은 인물의 결정이 아니니라. 그것은 자아보다 앞선 방향이요, 살아 있는 기능 안에 구현된 것이니라.

바깥의 빛을 바라보라.

그것은 이미 있던 것을 보이게 하느니라. 그 안의 대응은 진리가 형태를 통과하는 것이니, 창문이 스스로 해라고 선포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라.

세대는 몸의 유대를 세우느니라. 임재함과 부재함은 그 관계를 만들지 아니하나,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드러내느니라. 돌보아야 할 섬김이 없어도 아버지라는 이름은 남을 수 있느니라. 임재함은 형태를 섬김으로 채우느니라. 부재함은 이름을 보존하고 그 기능을 비우느니라.

바깥의 형태 앞에서의 두려움을 바라보라.

그것은 실제 위험에 응답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안의 취약함으로 향하는 다리를 열 수도 있느니라: 고통에 대한 두려움, 통제를 잃는 두려움, 침범당하는 두려움, 혹은 자신의 형태를 보호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니라.

상징을 통과하는 것은 바깥의 위험을 부정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완전한 관계를 드러내느니라.

하나의 동일한 보이지 않는 실재는 많은 형태를 만날 수 있느니라.

하나의 동일한 형태는 여러 대응을 담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라의 언어는 딱딱한 사전이 아니니라.

대응은 맥락과 기능과 관계와 의도와 섬김과 열매를 통해 분별되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함 → 말씀이 선포함 → 의도가 방향을 정함 → 상징이 엶 → 형태가 구현함 → 의식이 인정함 → 열매가 드러내느니라.

상징 속의 언어: 나라의 원래 언어

형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가능하게 하신 것을 밖으로 선포하느니라.
창조는 관계를 통해 말한다.

씨앗, 나무, 물, 불, 빵, 문, 길, 등불, 보좌, 칼과 도성은 소수에게만 남겨진 암호를 담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그 형태와 기능이 그것보다 앞서는 어떤 것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말한다:

받고 전함.

열고 닫음.

비추고 감춤.

먹이고 삼킴.

섬기고 다스림.

죽고 일어남.

나라의 원래 언어는 대응이다.

상징은 그것의 살아 있는 단위이다.

그것은 단지 다른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관계가 인식될 수 있게 하는 통과 가능한 형태이다.

상징은 말씀이 형태로 향하는 다리이다.

그러나 옷이 말씀 전체를 담지는 않는다.

형태가 완전한 의미라고 선언되면, 상징은 닫히고 우상이 태어난다.

기원의 두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현의 운동과 기억의 운동이 존재한다.

발현의 질서는 안에서 밖으로 내려온다:

말씀 → 의도 → 상징 → 형태 → 섬김 → 열매.

말씀은 앞선다.

의도는 방향을 잡는다.

상징은 다리를 놓고 대응을 운반한다.

형태는 그것에 보이는 몸을 준다.

섬김은 그것의 방향을 드러낸다.

열매는 증언한다.

어떤 외부적인 것도 그것이 구현하는 내부적인 것을 일으키지 않았다. 금속 왕관이 권위를 창조하지 않았다. 외부 보좌가 통치를 창조하지 않았다. 돈이 부를 창조하지 않았다. 성전이 임재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말씀보다 뒤에 있는 형태들이며, 그것들보다 앞서는 상징에 열려 있는 동안에만 충실히 섬길 수 있다.

형태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있으므로, 기억은 그것들을 묵상함으로써 시작하여 그것들을 그 기원으로 통과할 수 있다:

묵상된 형태 → 통과된 상징 → 내적 대응 → 기억된 말씀 → 회복된 형태.

이 귀환은 형태를 원리로 만들지 않는다. 그것을 흔적으로 묵상한다.

행렬은 바로 이 차이를 위조한다. 그것은 뒤집힌 인과성을 가르친다:

형태 → 상징 → 말씀.

그것은 외부 형태가 실제로 그것보다 앞서는 것을 생산하고, 담고,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 후 그것은 상징을 숨겨 아무도 그것을 통과할 수 없게 하고, 형태를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문으로 관리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표면을 경배하게 만든다.

돈을 경배하는 자는 돈이 납치한 내적 부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외부 정부를 경배하는 자는 그가 넘겨준 권위, 주권, 내적 통치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소수의 왕관을 경배하는 자는 그 상징을 통과하여 모든 이의 대관식,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안에 이르지 못한다.

성전을 경배하는 자는 자신을 거처로 인식하지 못한다.

말씀의 질서를 기억하지 않고 밖에서 행동하는 것은 새로운 이름 아래 그 뒤집힘을 재생산한다.

충실한 형태를 돌려주지 않고 안에서 기억하는 것은 계시를 살 없는 채로 남긴다.

행렬은 상징들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내적 대응도 열어야 했던 것을 완전히 밖에 둔다.

짐승은 단지 또 다른 적이 된다.

보좌는 단지 외부의 좌석이 된다.

전쟁은 단지 군대가 된다.

죽음은 단지 몸의 끝이 된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된다.

반란은 단지 다른 이들에 대한 일어섬이 된다.

혁명은 단지 통치자들의 교체가 된다.

그리하여 인물은 안에서 계속 먹이는 것을 밖에서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되는 뒤집힘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단지 내부적인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 전쟁은 단순한 은유가 되고 몸들은 계속 상처받는다. 억압은 하나의 생각으로 축소된다. 피해자는 다른 이가 계속 일으키는 해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도록 강요받는다.

그것 또한 상징을 닫는다.

다리는 두 언덕이 필요하다.

외부 형태는 실재한다.

내적 대응도 실재한다.

반란은 의식이 일어서서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인물에게 순종하기를 멈출 때 시작된다.

다음과 같이 말하던 동일시가 죽는다:

«나는 단지 이 이름, 이 두려움, 이 상처와 이 이야기일 뿐이다».

그 죽음은 살을 해치지 않는다.

그것은 찬탈을 파면한다.

혁명은 그 후에 시작된다.

그것은 생각, 의지, 관계와 형태가 참된 중심 주위로 다시 회전하게 하는 전환이다.

반란: 의식이 일어나 거짓 중심을 파면한다.

혁명: 형태들이 생명의 궤도로 돌아온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반란 없이는, 동일한 자아가 새로운 형태를 다스릴 것이다.

혁명 없이는, 의식이 관계들이 계속 복종하는 동안 기억했을 뿐일 것이다.

문자적 단어는 알린다.

상징은 통과한다.

대응은 모은다.

기억은 인식한다.

성육신은 응답한다.

이것이 나라의 원래 언어이다.

진리와 빛과 창문

창은 통과를 허용하거나 막을 뿐이요, 결코 빛의 근원이 아니었느니라.
진리는 우리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인격, 그 인격의 신념, 해석, 그리고 그것을 이름 부르려는 모든 말보다 앞선다.

진리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진리는 기원과의 일치이다.

빛은 스스로 드러내는 진리이다: 그것은 존재했으나 숨겨져 있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빛은 진리를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게 할 뿐이다.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의 이해는 그것의 일부가 인식될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진리는 하나이다. 그 기원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 인격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게 동일하지만, 어떤 특정한 관점도 그것을 온전히 담을 수는 없다.

인격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인격의 관점, 이해, 그리고 말이다.

인격이 자신의 조건화에서 태어난 것을 «나의 진리»라고 부르며 그것을 근원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또 다른 진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관점을 기원의 자리로 끌어올려 거짓말로 만든 것이다.

같은 빛이 서로 다른 창문들을 통과하는 것을 묵상하라.

각 창문은 고유한 위치, 크기, 색, 투명도, 그리고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빛의 가시적 현현은 모든 창문에서 동일하지 않다.

인격은 창문이다.

그의 몸, 기억, 언어, 지식, 두려움, 욕망, 그리고 상처는 유리의 색에 참여한다.

고유함은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빛이 되풀이될 수 없는 현현을 받게 한다.

전도는 창문이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된다:

«이것은 나의 빛이다».

«나 밖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형태가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

어떤 유한한 형태도 진리를 완전히 담지 못한다. 이것은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빛의 영속성과 창문의 한계를 구별하라.

진실로 진리로 드러난 것은 나중에 거짓말로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표현은 교정될 수 있다. 더 깊은 이해가 열릴 수 있다. 그것을 전달하려는 상징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그 반대가 되지 않는다.

임재는 유리를 닦는다.

분별은 묵상된 것을 인격이 덧붙인 것으로부터 분리한다.

작업은 창문을 연다.

열매는 빛이 얼마나 많은 통로를 찾았는지를 드러낸다.

말하지 말라:

«진리는 나에게 속한다».

인식하라:

«나는 나보다 앞선 진리 안에 존재하며, 내가 그것에 넘겨주는 형태에 대해 나는 응답한다».

거짓말과 그림자

그림자는 스스로의 기원을 가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형태가 빛의 통과를 막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어둠은 빛을 낳지 못한다.

또한 스스로를 기원하지도 않는다.

빛은 존재한다.

그림자는 어떤 형상이 빛이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 발생한다.

낮 동안 몸은 태양과 그 뒤에 있는 것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림자는 또 다른 어두운 태양에서 나오지 않는다.

빛이 없다면 그림자도 없을 것이다.

그 통과를 막는 형상이 없다면, 그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이 일어난다.

말씀은 기원이 소통하는 것이다.

진리는 그 빛이다.

의식은 그것이 인식될 수 있는 제단이다.

우리의 형상은 그것이 말씀, 결정, 그리고 행위로 변할 수 있는 창문이다.

인물이 기원과 섬김 사이에 놓일 때, 그림자가 나타난다.

두려움이 유리를 덮는다.

상처가 해석을 왜곡한다.

욕망이 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다.

교만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그 후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림자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과를 막을 때 행하는 것의 결과이다.

거짓말은 인물과 그 자아가 통과시켜야 했던 빛을 막거나, 빗나가게 하거나, 가로챌 때 우리에게서 비로소 태어난다. 그것은 진리보다 나중이며, 그것을 받는 존재보다도 나중이다. 그것은 어두운 기원이나 다른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상응을 방해하고 그 후 자신의 그림자를 실재로 제시하는 형상에서 나온다.

거짓말은 그 그림자가 말을 통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할 때 나타난다.

그림자는 방해이다.

거짓말은 스스로를 빛이라 선언하는 방해이다.

거짓말은 창조하지 않는다.

모방한다.

지배는 질서를 모방한다.

사치는 풍요를 모방한다.

선전은 증언을 모방한다.

브랜드는 인장을 모방한다.

거짓 겸손은 어린 양을 모방한다.

생명을 사는 도시는 그것을 주는 거처를 모방한다.

그림자는 지성, 말, 상상력, 욕망, 조직, 그리고 힘 —생명에서 태어난 능력들— 을 취하여 그 섬김의 목적지를 바꾼다.

방해가 이야기, 관습, 상, 벌, 제도, 그리고 소속의 조건이 될 때, 그림자는 건축물을 얻는다.

그리하여 망각의 행렬이 나타난다.

그것은 의식을 창조할 수 없다.

그것은 의식을 인물과 동일시된 채로 유지시킬 수 있다.

그것은 창조적 힘을 기원할 수 없다.

그것은 그것을 복종하고, 사고, 경쟁하고, 배운 형상들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그것은 나는 나다를 파괴할 수 없다.

그것은 그것을 이름들, 진영들, 두려움들, 그리고 빚들로 덮어 기억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만들어 그림자를 이기지 못한다.

임재가 방해를 드러낸다.

진리가 그것을 이름 짓는다.

의지가 통과를 막던 것을 거둔다.

행위가 열매를 회복한다.

그림자를 영원한 정체성으로 만들지 말라.

진리로 바라볼 때, 그것은 창문이 열려야 할 자리를 가리킨다.

빛은 존재한다.

그림자는 발생한다.

진리는 영원히 남는다.

거짓말은 그것을 생산하는 형상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끝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과의 하나 됨에 대한 책임입니다.

일치는 차이를 지우지 않는다; 그것이 절대적 분리로 변하는 것을 막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 다른 이의 개별적 경험을 무시하게 만든다면, 그 인물은 이미 하나됨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생각, 기억, 육체, 역사를 공유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한 기원과 어떤 형태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 생명을 공유한다.

하나됨은 차이를 필요로 한다.

차이가 없다면 만남도, 경청도, 관계도, 고유한 열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차이는 하나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없다면 차이는 무관심, 위계, 혹은 지배로 변할 수 있다.

의식이 인물을 중심으로 수축된 상태에서 벗어날 때, 다른 이의 고통은 더 이상 완전히 남의 현실로 치부될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상처 입은 생명이 우리의 책임의 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된 의식은 묻는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든 것과 하나인 의식은 묻는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가 드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됨은 너에게 다른 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를 무시할 변명을 너에게서 거둬 간다.